



◇6월28일 대구사원주지련 신도회에서 운영하는 '불자의 집'에서 봉사자들이 배식하고 있다.

대구사원주지련 불자의 집

### 바라밀현장

쌀·계란 등 부식 정기적으로 숨어서 전달 독거노인·노숙자급식 큰 힘 '무주상 보시'의 고마움에 자원봉사자 즐거운 손길

## “얼굴없는 불자가 만든 음식 드세요”

“뚝뚝, 지글지글, 타타타타.” 6월 28일, 대구사원주지련 신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 삼덕동 관음사(주지 원명스님) 무료급식소 ‘불자의 집’이 자원 봉사자들의 음식 조리 소리로 소란스럽다. ‘불자의 집’은 인근 국제보상공원에서 거리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무료급식소의 1기 식사로 하루를 건디는 경우가 허다 해 공양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에 더욱 정성이 배어간다.

‘무주상 보시’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난다. ‘불자의 집’은 지난해 6월 개소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매달 쌀 20kg 1포씩을 보내오거나 한달에 두세 차례 달걀 10판(300개)을 두고 가는 ‘얼굴없는 불자’가 있는가 하면 각종 부식을 놓고 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날 오전 9시에도 어김없이 제란 10판(300개)이 배달되었다. 김대희(50, 불명 진오) ‘불자의 집’ 운영위원장이 한마디 건넬 겨를도 없이 “저도 불자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라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매달 쌀을 보시하면서도 쌀집주인의 말 밖에 전해들을 수 없는 이. “누군지는 밝히

지 말고 그냥 전달만 해 주라고 했다”는 이. 또 ‘불자의 집’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라는 말과 함께 큰 돈을 선행 내어놓는 이도 있었다. 언젠가는 이런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급식소의 따뜻한 밥 한릇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김대희 운영위원장은 “이런 분들의 무주상 보시가 있기에 자원봉사자들도 더욱 힘을 내게 된다”고 말한다. 이날 ‘불자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불심회’ 이경자(57, 불명 대덕화) 회장은 지금까지 사찰 등에서 갖던 신형모인의 장소를 다음달부터 옮길 예정이다. ‘불자의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사다가 들어가지 않으니

이것을 가져 부식 등을 준비하기 위한 후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의 집’은 정부지원 없이 오직 후원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항상 뼈뺀 살림살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알리지 않고 도움을 주거나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려는 수많은 불자들의 무주상 보시가 있기에 항상 마음만은 넉넉하다. 대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불자의 집’은 매주 목·금·토요일 3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중 무휴로 150여명의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펼치고 있다. (053)257-0104 대구=박원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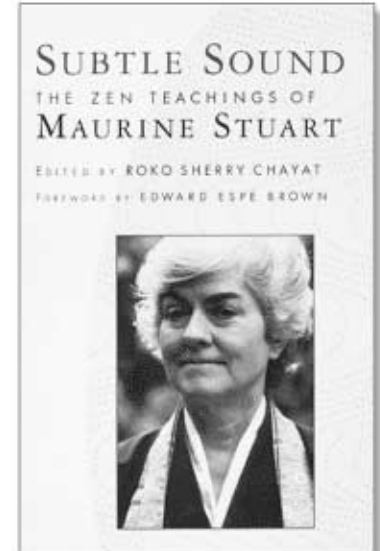
###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표린 표은 스튜어트 (T)

#### 가정·직장 방문지도 생활선 보급

심오한 동시에 장난을 좋아하던 소엔 노사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스승임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토록 오랜 인연의 끈을 알아볼 때의 마음을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은 소엔 노사가 스승이거나 존경받는 승원장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양을 경건하게 바라보던 스님의 모습, 차 한잔을 마실 때 차와 찻잔과 차를 따르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스님의 평정심. 나는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분만이 나의 진정한 스승임을 확신했습니다.” (‘미묘한 소리’ 중에서) 스튜어트 법사는 재가자의 생활선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자주 수련생들의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곤 했다. 그렇게 할 때 가정과 선원, 일상생활과 좌선의 경계가 녹아들도록 지도할

관한 자기중심적인 유아론(唯我論)적 시각을 갖기 쉽다는 생각도 있었다. 때문에 캄보디아 불교회 수련생들은 이 곳에서 배운 것을 사회로 돌아가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실천해야만 했다. 동시에 매일 개최되는 집중수련회에서는 일상생활을 접고 일제중의 엄격한 가풍에 맞춰 정진해야 한다. 선은 남성 또는 여성, 타이틀이나 계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스튜어트 법사. 그는 서구에서는 드문 여성 선이 되었지만 선 불교의 가부장적 체제를 비난하는 강성 페미니즘보다는 ‘선불교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고 주장했다. 소엔 선사가 가르쳤던 선수행은 ‘열린 마음’로,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 내려놓는 수행’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튜어



◇스튜어트 법사의 저서 <미묘한 소리>의 표지.

#### 유아론적 시각 갖기쉬운 공동체 구성 안해

#### 가부장적 체제 비난 대신 여성 할 일 강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 자녀의 엄마라는 가정주부로서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했다. 선방에서 수행할 때는 가족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 같고, 집에서는 수행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러나 스튜어트 법사는 결국 선(禪)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나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행이란 가정도 양보할 일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 돌아와 모든 것에 직면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수행입니다.” (‘미묘한 소리’ 중에서) 생활선을 지향하는 스튜어트 법사는 전통적인 승가처럼 거주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다. 거주 불교공동체가 갖는 배타성으로 인해 삶의 풍요로움에 자신을 열지 못하고 권위적 정형화에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

트 법사의 열린 마음은 그녀에게 ‘수행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스승’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소엔 노사로부터 채택한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은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란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경험한 것이다. 그녀의 은사인 소엔 선사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실 완성이란 것은 없단다. 나도 수행중이고 너도 그렇단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미묘한 소리’ 중에서) 1990년 암으로 입적한 스튜어트 법사는 ‘어머니 노사(Ma Roshil)’라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다가오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달아나지도 마세요.” 김재경 기자

## “차 한잔에 마음 담아 드립니다”

— 길음복지관 기금마련 일일차집 —

### 봉사, 후원자, 주민 참여

### 1500여 만원 마련

“여기 녹차 한 잔이랑 시원한 커피 두 잔 주세요.” “손님, 주문하신 음료입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 성신여대 앞 피라미드 카페에서는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과

장 제원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눴다.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사랑나눔터’를 주제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기금 마련 일일차집이 문을 연 것이다. 길음복지관은 1997년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단체들에게 복지관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일일차

집을 열기 시작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일일차집은 매년 500~600명의 복지관 이용자와 봉사자, 후원자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차도 나눠 마시고 복지관 기금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날 열린 일일차집에는 성북구에 위치한 장외종합사회복지관과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봉사자들과 복지사들도 동참해 정성을 보냈다. 특히 올해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차집 티켓을 판매하는 일부 지역단체 홍보와 주방관리까지 도맡아 진행했다.

제원 스님은 “후원자 및 봉사자들에게 무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행사를 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마련된 1500여 만원은 무료급식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이동목욕 서비스 등 무료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6월28일 열린 길음복지관 ‘일일차집’.

## 범주스님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여름명상캠프



신나는 여름!! 푸르고 싱그러운 녹음 우거진 속리산 달마선원에서 잡나를 찾는 명상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 프로그램

- \* 동해의 소리 배우기(북과 소리와 춤으로 만드는 신나는 동적인 명상)
\* 조용한 음악을 통해서 들어가는 정적인명상(자연감상, 비파사나, 참선)
\* 고풍한 새벽 숲속의 산책과 저녁의 캠프 피아노!!
\* 달마도 그리는법 배우기 \* 선문화 동영상 감상

◆ 연 제 : 제 1회 7월 15일(화) - 17일(목) 2박 3일 제 4회 7월 29일(화) - 31일(목) 2박 3일 제 2회 7월 19일(토) - 21일(월) 2박 3일 제 5회 8월 8일(금) - 10일(일) 2박 3일 제 3회 7월 25일(금) - 27일(일) 2박 3일

- ◆ 어디서 : 속리산 달마선원 -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294번지
◆ 참가자격 : 대학생, 일반인(선착순30명)
◆ 준비물 : 가벼운 운동복과 운동화, 세면도구 등
◆ 참가비용 : 1인당 5만원(2박 3일 숙박과 식사포함)
◆ 문 의 : 전화 054) 535-0378 / 팩스 054)535-4750
E-mail : boo1947@hanmail.net • Homepage : www.dharma-art.or.kr

◆ 정규적으로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날 1박 2일의 명상교실 계속 운영중
달마선원(선문화예술원) 원장 범 주 합장

### 직장인을 위한 불교과장 (2년과정)

## 2003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3기생을 모집함

Table with 2 columns: Year/Course (1년 교과목, 2년 교과목) and Subjects (e.g., 법화사상, 법교사회복지론, 불교미술, 불교음악, 불교철학, 불교심리학, 불교상담론, 불교상당론,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 박종(동산불교대교수), 문윤식(동국대교수), 권민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권기중(동국대교수), 최경석(동국대교수), 윤영순(문화재단전문위원),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경섭(금강선원이사장), 김로귀(동국대교수), 암도스님(전교무원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영철(동국대교수), 정병호(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김상영(승가대교수), 표주스님(동국대교수), 차차석(동국대교수)

Table with 7 columns: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Includes details for 2003-2004 academic year, such as application dates (2003.6.22-2003.8.2), fees (200,000 won), and locations (Dongsan Buddhist University).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3년 8월 9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학과 이외의 학과 : 9월 첫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역)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수리서점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와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